

홍콩반환과 새로운 '中華'의 시작

홍성범¹⁾

1997년 7월 1일을 기해 천안문광장 한편에 세워졌던 대형 초시계는 사라졌다. 홍콩반환까지 남은 시간을 초단위로 재었던 중국의 절실한 모습도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유니온잭이 내려지고 五星紅旗가 게양되었고, 중국 國歌인 '의용행진곡'이 홍콩 완차이부두의 컨벤션센터와 천안문광장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으며, 4천여명의 인민해방군이 영국군을 대신해 홍콩에 모습을 드러냈다. 7월1일 0시30분 영국측 인사들을 태운 브리태니아호가 해군기지를 떠나면서 영국의 156년 홍콩통치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이제 '香港'(Hongkong)과 '香港人'(Hongkonger)은 없어졌다. 대신 '中國 香港'(Hongkong, China)과 '中國人'(Chinese)이 있을 뿐이다.

'80년대 초부터 홍콩반환을 모색했던 등소평은 급격한 변화없이 홍콩을 인수하기 위해 '一國兩制'라는 묘안을 도출했다. 즉 1984년 중국과 영국이 합의에 따라 반환 후 50년동안 현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군사안보와 대외관계만 관장할 뿐 내정은 완전히 자치에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이른바 "收回主權一國兩制 港人治港 高度自治"(주권을 회수, 한 나라 두체제의 원칙하에 홍콩인들의 홍콩통치와 고도자치를 실현한다)라는 16字 방침의 추진이다. 따라서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은 물론 입법 사법권과 최고법원의 終審權, 재정독립권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유방임주의 체제와 사회주의체제가 통합되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다.

홍콩의 현주소

1841년 중국정부는 아편전쟁에서 진 뒤 홍콩섬과 九龍반도 일부를 영국에 租借했다. 1898년에는 홍콩 新界地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1997년 홍콩반환은 이 신계지의 99년간 조차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1997년 5월 26일자 「Fortune」誌는 홍콩특집에서 홍콩이 지구총경제에서 중요한 12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첫째,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경제(헤리티지 재단분석) 둘째, 세계 3위의 국가경쟁력(IMD평가) 셋째,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터미널 넷째, 과거 10년 연평균 6% 성장 다섯째, 외환보유고 660억달러 세계7위 여섯째, 1인당 GDP 25,300달러(96년) 일본에 이어 아시아 2위(영국, 호주보다 높음) 일곱째, 세계 5위의 외환시장 여덟째, 세계 8위의 주식시장(3,500억달러) 아홉째, 세계 최저수준의 세율(법인세 16.5%, 소득세 15%) 열번째, 실업률 2.5%에 불과 열한번째, 816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 소재 열한번째, 세계 7위의 외환 보유고(660억달러) 열두번째, 교역량 3,760억달러(중국과 36%)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홍콩은 해외투자 4위, 컨테이너처리 1위, 1인당 국민구매력 5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주관하에 작성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는 '95년에 이어 '96년도에도 종합경쟁력 순위가 1위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미국으로 발표되었다. 인구 640만명에 불과한 홍콩 경쟁력의 원천에 대해 도널드 창(Donald Tsang) 홍콩 행정원 재무장관은 法治, 평등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level playing field),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언론자유 4가지를 선정한 바 있다. 실제로 홍콩반환후 홍콩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주변국들에 비해 선진국수준의 인프라, 낮은 세금,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작고 효율적인 정부, 사회의 다원성 등으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외환통제도 하지 않는 등 자유방임에 가까운 경제정책과 공공부분 지출이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미니정부의 추구, 18만명 공무원들의 청렴성과 서비스정신은 이미 정평이 나있는 부문이다.

홍콩의 기반은 금융과 무역에 있다. 취급하는 금융자산규모로 뉴욕, 런던, 동경에 이어 세계 4대 금융센터로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다. 미국 등 40여개국 156개의 외국은행을 포함, 380개의 은행이 활동하고 있다. 또한 1백여개국의 460개 항구를 연결하는 국제 해운의 중심지로 '90년 이래 화물물동량이 매년 16%씩 늘어나는 고속성장을 구가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반은 정보인프라이다. 인구 1백명당 67.7개에 해당하는 풍부한 고정회선, 아시아에서 가장 싼 통신비용, 세계 최초의 고정회선 완전 디지털화, 인구 10명당 1명꼴의 휴대전화보유가 홍콩의 특징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中華經濟圈'의 거점도시

홍콩은 '동양의 진주'로 불려져 왔다. '97년 홍콩반환후에도 계속 진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홍콩의 장래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첫째는 중국 개혁개방의 순조로운 진행으로 인한 현상유지 발전, 둘째는 개혁 개방의 실패와 민심이반, 홍콩의 분리 움직임 등으로 인한 급진적 붕괴, 셋째는 중국의 권력다툼과 구조적 모순의 홍콩 이전으로 인한 점진적 악화 등이다. 전문가들은 그 확률을 60대10대30정도로 보고 있다. 그만큼 홍콩의 장래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우선 중국이 홍콩을 경제적으로 적어도 영국식민지시절보다 더 발전시켜야 할 명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번영이 영국 통치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국의 개혁개방 때문이라는 주장을 실증시켜할 당위성이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스스로 이미 홍콩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두었기 때문에 홍콩경제의 쇠퇴는 중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95년말을 기준으로 홍콩에 투자된 영국자본은 1,454억 달러, 중국 1,075억달러, 일본 876억달러, 미국 717억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9·5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 내륙발전전략과 첨단산업으로의 구조조정에서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채널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90년 이후 중국은 홍콩을 통해 수출상품의 반 이상을 거래하고 외화소득의 3분의 1을 얻고 있으며, 외자의 60%를 홍콩에 의존해 왔다.

중국은 개혁개방후 深圳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이미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를 중국중심의 'Pax Sinica'로 재편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홍콩의 배후에 위치에 있던 작은 해안마을인 심천을 경제특구화하면서 이른바 "深港經濟圈"을 구상했다. 심천의 1인당 GDP는 용머리로 불리는 상해의 2배인 5천달러에 이르고 있고 외자도입액도 북경의 1.6배인 28억달러를 올렸다. 2, 3차산업의 생산액이 GDP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지속발전을 가능케 할 환경친화적 정보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深港經濟圈"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두 번째 단계는 "深港經濟圈"과 廣東省 珠海, 汕頭 등 3개 경제특구와 廣州市를 포함하는 이른바 珠江델타를 중심으로한 "華南經濟圈"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이었다. 홍콩총상회의 자료에 의하면 홍콩제조업체의 70%정도가 珠江델타를 중심으로한 광동성에 집중되어 있다. 廣州등 9개 대도시와 420개 지역으로 이뤄진 3천3백만 인구의 珠江삼각주 지역을 홍콩의 산업기지로 더욱 확대시킬 계획이다. 지난 10여년동안 홍콩과 광동성의 일체화에 따라 대규모 경제권이 형성되었고 특히 珠海, 심천, 홍콩간의 대교가 건설되면서 이 지역의 경제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는 중국본토, 대만, 싱가포르, 홍콩, 기타 동남아권의 華人네트워크를 연계시킴으로써 중화인들에 의한 일련의 경제동맹체를 형성, "(大) 中華經濟圈"(Great China)를 탄생시

키는 단계이다. 중화경제권은 EU처럼 구체적인 동맹체로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난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미 이들 국가간에 경제협력네트워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홍콩반환은 거대 중화경제권을 현실화하고 있다. '97년 3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1,140억달러로 일본의 2,182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반환되는 홍콩의 830억달러와 대만 950억달러, 싱가포르 680억달러를 합치면 그 수치는 3,500억달러가 넘는다. 교역규모에서도 중국 3,100억달러, 대만 3,300억달러, 홍콩 3,800억달러, 싱가포르 2,500억달러 등 모두 1조3천억달러 수준으로 전세계무역량의 15~20%에 달한다. 이와같은 거대중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 대만과의 통일이다. 등소평이 홍콩반환을 위해 '一國兩制'의 묘안을 도출한 것도 대만통일을 염두에 두고 홍콩에 적용해 본다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는 기존 中華네트워크에 북미 및 유럽에 퍼진 화인들을 연계시켜 "Pax Sinica"의 시대를 등장시킨다는 구상이다. 이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캐나다 밴쿠버에 새로운 화교거점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 태평양연안의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미국의 정치 사회계에서도 일정지분을 행사해 태평양을 곧 "華인들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같은 단계별 구상에서 홍콩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국제화인사회의 중심으로 중국 대륙과의 연결통로였던 홍콩이 반환됨에 따라 화인네트워크는 '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정보서비스 중심지인 홍콩을 매개로 심천 등 광둥성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화남경제권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만, 싱가포르 등 화교권과 더불어 중화경제벨트를 이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콩반환은 용이 발톱을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경제발전이란 고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중국이란 대형기관차에 홍콩이란 고성능 로켓엔진을 새로 장착시켜 준 것이다" 등 각 언론의 표현이 결코 허구로 들리수 없는 현실이 지금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중국기술혁신의 새로운 원천

중국의 홍콩이 기존의 수행했던 자본 및 기술도입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반환후에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몇가지 전략들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콩의 종합자(integrator)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점이다. 1979년 GDP의 24%였던 홍콩의 제조업부문의 점유율이 최근 15%대로 감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위주의 홍콩의 장래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96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결과는 이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다. 즉 홍콩의 제조업부문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단지 제조업부문의 해외이전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저부가가치 제조업부문을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이전한 가운데 홍콩본사에서 마케팅과 상품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제조업비중이 수치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일뿐이라는 사실이다. 직접적인 상품생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제조업, 금융투자, 사회간접자본구축 등의 분야에서 산업활동을 조정하는 통합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자산업 등 첨단부분에서는 기초산업과 달리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자체의 생산 노하우에 홍콩의 마케팅노하우를 결합할 경우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둘째는 홍콩자체의 하이테크 산업도시화 구축이다. 중국 정부가 수년전 수립한 "珠江삼각주 개발계획"에 따르면 '97년 이후 홍콩을 하이테크 산업도시로 육성, 중국 본토에 하이테크 기술을 공급하는 기지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홍콩이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쌍방향TV, 효소식품, 초소형모터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홍콩산업과학센터, 홍콩과학기술대

의 설립, 사이언스 파크의 추진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비공식적인 첨단 국방기술의 도입채널이 공식화됨으로써 핵심기술의 도입이 한층 용이해 졌다는 점이다. COCOM체제하의 강력한 규제속에서도 자유무역항인 홍콩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 많은 첨단기술들을 도입했던 중국은 홍콩반환을 계기로 대서방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미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군수품이나 군사관련 물자 수출을 규제키로 방침을 정하고 "對홍콩수출규제를 위한 기술안"을 마련한 것과 무관치 않다. 기준안에서 정한 규제대상 품목은 티타늄합금, 텅스텐 합금, 유도시스템으로 전용할 수 있는 광센서 등 37개 품목이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 그래픽스사가 초당 60억개 연산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중국과학원에 판매했는데 핵전문가들은 이 컴퓨터가 인민해방군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주석 1) 대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행정학 박사 (TEL : 02-250-3073)